

음식과 수행

자반고등어 맛의 비밀
감칠맛의 주인공은 코리네박테리움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고등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대량으로 어획되고 있는 대표적 인 연근해 어종 중의 하나이다. 특히 등푸른 생선으로 고도불포화지방산과 아미노산, 핵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적인 면이나 생리적인 기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광우병이나 돼지콜레라, 조류독감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 없다. 하지만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빨리 산패되고 비린내가 심해 생고등어는 대량 소비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내륙지방에서는 냉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어에 굵은 왕소

다. 즉, 너무 많은 소금을 뿌리거나 너무 적게 뿌리면 비린 맛을 내거나 맛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자반고등어를 잘 만드는 숙련된 사람들(간접)은 소금의 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코리네박테리움은 고등어에서 병원성 미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항생제와 같은 물질도 생산한다고 하니 이렇게 고마운 세균도 없다.



자반고등어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며 미생물을 이용한 과학적인 식품이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유산균의 역할이 중요하듯 자반고등어에서는 코리네박테리움이 맛과 위생을 책임지는 고마운 미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광 굴비, 안동 간고등어 등이 밥도둑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소금에 절이는 방식이나 숙성하는 방법은 경이롭게도 모두 맛난 맛을 만드는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조건으로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자반고등어와 굴비의 맛의 비밀과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미생물에 달려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이승우 기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75회>

'나'라는 주체의식에 이끌려 사는 것은 곧 선악과를 먹는 생활

- 10절: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5) 밀실에 입문하다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9) 내가 이겼나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지난호에 이어서)
언젠가 비가 많이 와서 마을 방천(防川)이 무너져서 수해가 난 후에 일곱째 천사 혼자서 며칠 걸려 큰 돌을 운반해서 그 돌을 다시 튼튼히 쌓아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도로보수도 하였습니다. 땅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희생적으로 일을 하였으므로 하루는 관할 행정공무원이 일곱째 천사를 찾아와 인적사항을 묻기에, "왜 그러시냐?"고 하니 표창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표창은 무슨 표창이냐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여 극구 만류하여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고 돌려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심한 중노동을 헌신적으로 하고는 일곱째 천사가 지나가면 그 동네나 이웃 동네에 놓고 있는 아이들이 "저기 꽃집의 머슴 아저씨 같다."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해와 이긴자가 계신 집은 꽃이 많이 있는 고로 '꽃집'이라고 불렸으며, 일곱째 천사는 그 집의 머슴으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밀실 안에서 모진 연단을 받는 중에서도 틈만 있으면 멀리 산에 올라 진달래를 캐서 심고 가꾸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꽃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단을 이곳저곳 만들어 나무를 심고 꽃씨를 뿌리니까 꽃이 사시 사철 만발하고 꽃동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웃어른이 야단치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웃어른에 대한 도리



흙처운 가마니를 다시 갖다 놓는 것이 더 어려웠다 / 그림 박준구 정로

일곱째 천사가 밀실에 들어가서 연단 받을 때 '사람이 왜 죽느냐?'라는 근본 원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의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마다 피가 계속해서 썩는 것을 안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듯이, 욕심이 죄라면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니까 '나'라는 의식은 욕심의 근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면 '나'라는 의식은 원죄요 선악과라는 답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까닭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즉 욕심이 중심이 된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피가 점점 마귀 피로 변하고 썩어서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게 살아보야 백 살이요, 그 안에 대부분 다 죽는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피가 썩어 죽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밀실 안에서 연단 받을 때, '나'라는 주체의식에 이끌려 사는 것은 곧 선악과를 먹는 생활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스스로 안 죽는 연습을 하려니까 반대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눈만 뜨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로 좋아하고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속으로 울화통이 터져도 그 울화통이 터지는 마음도 '나'라는 주체의식인 자존심이 그러는 것이지 양심이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양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이 하나님

의 피를 이어받고 있음을 알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를 미워하고 일곱째 천사에 대해서 시기하고 틈만 있으면 일곱째 천사를 골탕을 먹이려고 일을 많이 시키고 일곱째 천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상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대자가 해와 이긴자에게 "조사장이 혼자 잘난 척합니다." 하고 거짓말로 보고하면, 해와 이긴자는 "왜 그러느냐?" 하고 일곱째 천사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자는 또 아저고 아저고 해와 이긴자한테 거짓으로 보고하여 일곱째 천사가 야단맞는 것을 고소하게 여기며 은근히 즐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걸로 일관했지 이유를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할 일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일도 없습니다." 하고 말대꾸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말속에도 어른한테 아이들이 말대꾸 하면 야단을 친다는데, 이는 인간사회에서 있는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법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어도 순치라도 웃어른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면 이제 그대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웃어른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되고 웃어른에 대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자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 번은 해와 이긴자가 밤중에 일곱째 천사를 부르시더니 민가에 가서 가마뱀기

를 흠쳐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쳐오다가 붙들리면 너 지옥이야!"
이건 붙들리면 지옥이라고 하니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리가 날 수 있기에 담을 넘어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가마뱀기를 어렵사리 흠쳐온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마뱀기를 흠쳐왔습니다."
"너,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내가 언제 이걸 흠쳐오라고 했어! 도로 제자리에 갖다 가 빨리 놓고 와!"

이런 터무니없는 말로 그냥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도둑놈이라고 하니, 밀실에서 연단 받던 사람들이 밀실에 붙어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곱째 천사는 '은혜자라는 사람이 왜 도둑질을 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조차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온전히 하나님에게 전체를 맡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간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맡겼으면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그러든,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개새끼라고 그러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오지 말고,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오되 누구한테 들리면 지옥이야!"라고 해와 이긴자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흠쳐올 때는 갖다 놓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흠쳐왔기 때문에, 다시 들리지 않게 갖다 놓는 것은 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웃었다는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네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비로소 돌아서 나올 때 참말로 그것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맑게 갠 쾌청한 일기인데도 해와 이긴자께서 "밖에 비가 오지?" 하면 "예" 하는 마음자세로 돌아가야지 "아닙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하면 이유변명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밀실에는 약 30명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는 다 한자리에 모이는데, 어느 날인가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명신을 주는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新金剛經解說

新金剛經 解說 <52>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 第二十九
엄숙한 옹모와 장중한 태도가 고요함

(지난호에 이어서)
[예시] 또한 우리나라 예언서인 격암유록(格庵遺錄) 말운론(末運論)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似人不人天神降 사인불인천신강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신께서 내려오신 것이다.
또한 불경에는 열반경에 미륵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21卷
광명변조고귀왕보살품 3
如來常行有漏中故 有漏即是二十五有
여래상행유루중고 유루즉사이입오유
是故聲聞凡夫人之言佛有漏
諸佛如來真實無漏
부처님께서는 항상 유루(有漏) 가운데 행함이나 유루란 곧 25유요 그러므로 성

문과 범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유루」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진실로 무루니라』
이 말씀의 뜻은 미륵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범을 설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지를 드시고 잠을 주무시고 각 지방과 해외제단을 순회 범문시에 자동차의 비행기를 이용하시니, 사람이 아니냐고 하지만 겉모습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조금도 번틈이 없으신 완벽한 부처님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제단에서 범문을 퍼실 때에 불덩어리 변하여 설법을 하시니 초발심을 낸 신자들께서 오셔서 보시고 놀리는 일들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범을 설하시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는 미륵부처님의 거의 두 배나 되는 불기둥이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니 이것이 32상의 하나로 말씀하신 《15. 몸에서 솟는 밝은 빛이 한 길(사람의 키)뎌》이 확인되고 있으니 모

든 경전에서 통일되고 일관되게 우주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미륵부처님 몸에서 솟구치는 이 빛이 바로 불경에서 석존이 말하는 감로(甘露)입니다.
[예시] 대반열반경 31권
가섭보살품(迦葉菩薩品) 제24-1
涅槃亦名涅槃...亦名甘露
열반역명열반...역명감로
열반은 또 열반이라고 이름하고... 또한 감로라고 하며

[예시] 대반열반경 9권 월유품(月輪品) 제15
亦名菩提不可窮盡
역명보리불가궁진
以不盡故 故得稱為大般涅槃
이불진고 고득칭위대반열반
有善光故 猶如夏日身無邊故 名大涅槃
유선광고 유여하일신무변고 명대열반
(그러므로) 또한 보리(菩提)는 다하여 끝남이 없다(不可窮盡)고 이르는데 다함이 없으므로써 대반열반을 얻었다고 부르는데, 훌륭한 빛이 마치 여름 해와 같으며,

면 대열반의 빛이 중생들의 모든 탈구멍을 통하여 들어가므로 중생이 비록 보리의 마음이 없다 해도 능히 보리를 짓게 하는 인연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이르면 대반열반이라 부르느니라.

또한 이 감로의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眞解脫者即是如來 進해탈자즉시여래
如來亦爾 不生不滅不老不死不壞 非有爲法
여래역이 불생불멸불노불사불괴 비유위법
死者名曰身壞命終 사자명일신괴명종
是處無死即是甘露 是甘露者即眞解脫
시처무사즉시감로 시감로자즉진해탈
참해탈이 곧 여래요, 여래는 또한 이같이 (번뇌가) 나지 않고 (몸이) 멸하지 않으며, (신체가) 늙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니, (자야, 뼈) 무너짐이 없고 힘이 있는 범(爲法)이 아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늙고 병들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는 것인데 (해탈함이) 모든 불경들의 삼매 가운데 최고로 수승한 것이니 모든 경전이 가지고 있는 밝은 빛이 있지만 비할 바가 아니니라. 왜냐하



▲ 미륵부처님 몸에서 솟구치는 불기둥

스님들이 죽는 것이 열반이 아니고 오직 성불하신 미륵부처님 한 분만이 열반에 들어 그 증표로 감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감로의 능력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도 지혜를 얻어 깨달음에 성불할 수 있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므로 비로소 영생의 큰 복과 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글을 보시는 독자께서는 의심치 마시고 직접 오셔서 마음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 찾아 큰 복을 짓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미증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자각해서 찾아뵙기를 권유 드립니다.\* 明鐘